삐삐블록(?)

5-2 7번 김가희

추웠던 토요일,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TV를 보고있었다.
그리고 숙제를 할때쯤 엄마께서 ~~우리까지~~ 한경이(엄친아 제서)와 삐삐블록이라는
곳에 가서 놀라고 하시면서 나시까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빠르게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출발했다. 삐삐블록에 도착하니 보인것은 수북한
레고와 보드게임 이였다. 선생님은 나는 받겨주셨고 레고 하나를 골라 만들
라고 하셨다. 1/3을 만들어 갈때쯤 나는 만드는것에 지쳐 거기에 있었던
이상하게 생긴 두더지 잡기 게임을 했다. 끝나고 보니 점수가 115점 이였다.
선생님이 이점수를 보시더니 "어림없지! 내 점수는 825점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잡으려고 한판 더했지만 765점이였다...
선생님은 그정도면 잘한거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나는 열등감이 생겼다.
두더지 잡기 게임도 질려 한경이에게 같이 도블을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도블이
시작 되었다. 처음엔 한경이가 이기고 있었지만 내가 나무를 연속으로 4번해
이겼다. 열등감이 조금 사라진건 같았다. 그 다음 갈시간이 되어 아쉬워하며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재밌는 하루였다.